



OPINION

교육을 바꾸는 학교 건축

글. 유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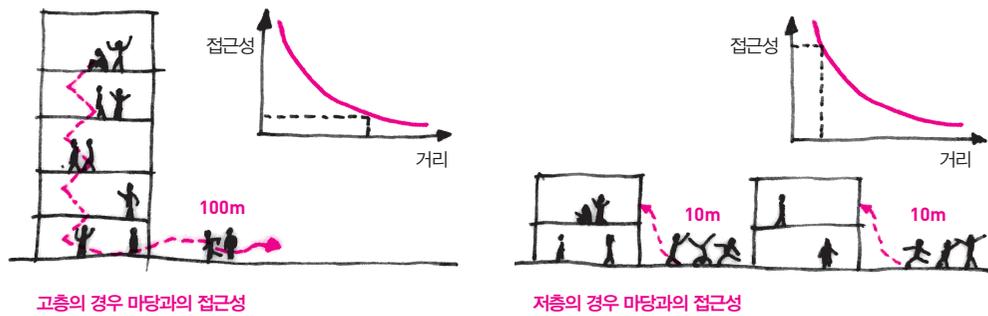
일본 도쿄에 위치한 후지 유치원 전경. 나지막한 단층으로 설계되었으며, 마치 도넛처럼 생긴 동그란 옥상은 에너지 넘치는 유아기 아이들이 질주 본능을 분출하기에 그만이다. 이 유치원은 아이들을 위한 집단 시설 건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학교야, 교도소야?

우리 주위에서 담장이 있는 건축물을 꼽자면 우선 두 가지가 떠오른다. 바로 학교와 교도소다. 학교와 교도소 모두 네모난 건물 하나와 넓은 운동장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 구성상의 차이를 찾을 수 없다. 이런 공간에서 12년 동안 생활하는 아이들의 사고와 성향은 어떨까? 똑같은 옷, 똑같은 식판, 똑같은 음식, 똑같은 교실에 익숙한 채 자라다 보니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따돌리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창의성이나 다양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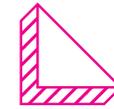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학교 건축은 과거와 달라진 점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다닌 학교나 우리 세대가 다닌 학교, 그리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모습이 똑같다. 과거에는 이런 일률적인 학교의 외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않았다. 방과 후에는 마당과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자연과 더불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비슷한 학원에서 공부하며, 뛰어놀 곳 없는 도시에서 획일하고 보편화된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학교 건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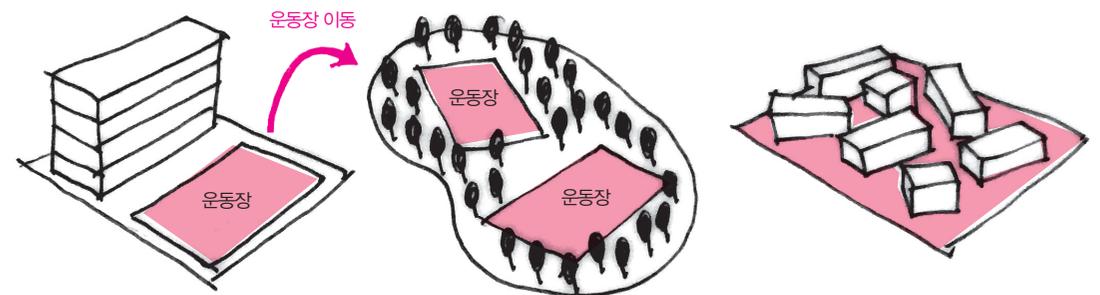
학교가 고층일 때보다 저층일 때 마당과의 접근성이 훨씬 좋다. 학교 1층에는 교무실 대신 교실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주자

통계를 보면 지난 40년간 특별활동실, 체육관, 식당, 강당,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학생 1인이 사용하는 실내 면적은 7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학교 면적은 그대로니 건물이 점점 고층화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게 된 것이다. 짧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까지 4~5층을 걸어 내려가 2~3분 뛰어놀고 다시 고층에 자리한 교실까지 올라올 아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바깥 공기를 쉰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힘들다. 무려 12년 동안 말이다.



다행히 최근 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빈 교실을 부수고 테라스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잠깐씩이라도 자연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그게 어렵다면 옥상이라도 개방해야 한다. 회사원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중요한 대화는 언제나 옥상에서 이루어진다. 옥상이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옥상이 위험해 개방할 수 없다면 1층 교무실이라도 꼭대기 층으로 올려 보내고 1층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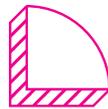
운동장의 이동으로 학교 건물의 분절과 저층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학교에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운동장을 주변 근린공원으로 옮기면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

바깥 공간과 가장 접근성이 좋은 1층에 교무실이 자리 잡고 있으니 2층의 아이들조차 밖에 나가기 어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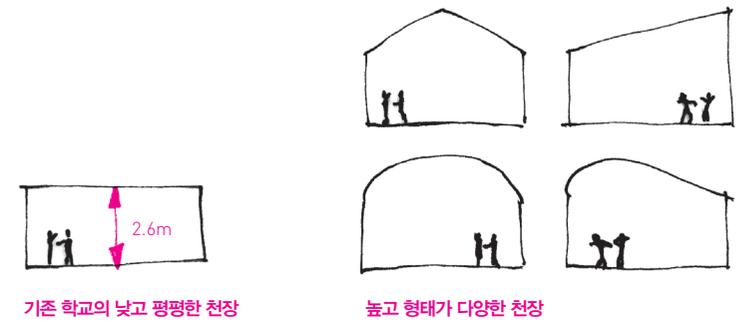
건물은 낮고 작게, 천장은 높게

건축 관련 사회학을 연구한 로버트 거트만(Robert Guttman)에 따르면 1~2층의 저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고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보다 친구가 세 배 많다고 한다. 애플, 구글 같은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유독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만 나온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 연구 결과에 수긍이 간다. 캘리포니아의 건물들은 지진 때문에 대부분 저층으로 세워진다. 저층 건물에서 생활하니 친구가 세 배 많아지고, 세 배나 더 다양한 생각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학교 건물은 저층화되고 분절되어야 한다. 서너 개의 교실을 모아 저층 주택 같은 교실동을 세우면 좋겠다. 지금 우리의 학교 건물 크기는 사람 몸의 580배 정도 된다. 이런 건물은 일종의 '시설'로 느껴져 아이들이 정을 붙이기 힘들다. 학교 건물은 사람 몸의 50배 정도의 크기면 적당하다. 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장을 근린 공원으로 옮기고, 분절된 교실동 앞에 각기 다른 형태의 마당을 만들면 어떨까?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다가 2학년 때는 연못이 있는 마당에서, 3학년이 되면 빨간색 경사 지붕이 있는 교실 앞마당에서 놀 수 있다면 아이들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며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장은 방과 후에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교실 천장 높이가 낮은 것도 문제다. 미국 미네소타대 경영학과 조운 메이머스 레비(Joan Meyers-Levy) 교수는 천장 높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천장 높이가 각각 2.4m, 2.7m, 3m인 공간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3m의 천장이 있는 공간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이 천장이 낮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에 비해 창의적



기존 학교의 낮고 평평한 천장

높고 형태가 다양한 천장

인 문제를 두 배나 더 많이 풀었다. 한데 우리나라의 교실 높이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2.6m로 동일하다. 우리 아이들은 2.4m 높이의 아파트, 1.5m 높이의 승합차, 2.5m 높이의 상가 학원 아래에서 짓눌려 생활한다. 학교에는 3m가 넘는 경사 지붕 교실도 있어야 하고, 둥근 천장을 한 교실도 있어야 한다. 아이들의 창의력은 학원이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천장이 있는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건물에 알록달록 색을 칠하고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학교 건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내 공간은 더 풍요로워졌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학교 건축이 점점 더 교도소와 비슷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학교 건축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학교 건축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



유현준은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 겸 유현준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이다. 하버드대, MIT, 연세대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저서로는 <어디서 살 것인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모더니즘: 동서양문화의 하이브리드> 등이 있다.